

# 방콕 또 폭탄 테러...패닉에 빠진 태국

21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태국 방콕 도심의 '폭탄 테러' 이틀남인 18일(현지시간) 또다시 방콕에서 소규모 폭탄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국 불안과 쿠데타로 가뜰이나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태국 경제가 또다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폭탄 테러의 배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태국 경찰은 테러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용의자를 공개하고 추적중이다.

◇경찰, 용의자 공개 및 추적=방콕 도심 폭탄 테러의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태국 경찰은 이 남성을 범인으로 사실상 단정하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들을 추가로 확보해 그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CCTV에는 노란색 셔츠를 입고 안경을 쓴 한 젊은 남성이 사람들로 붐비는 에라완 사원 근처 벤치에 앉아있다가 등에 메고 있던 커다란 검정색 배낭을 의자에 내려놓고 가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남성이 떠나고 나서 수 분 뒤 이 벤치에서는 큰 폭발이 일어났다.

태국 경찰은 이 남성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소규모 폭탄 폭발 잇따라=에라완 사원 인근 폭탄 테러로 현재까지 21명이 120여명이 부상한 데 이어 18일 오후 방콕 짜오프라야강에서 또다시 작은 폭발물이 터지는 등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18일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날 폭발에 사용된 폭탄이 앞서 17일 사건 때와 동일한 사제 파이프 폭탄으로 확인됐다는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윅 찬-오차 총리는 이번 테러를 "태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상태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태국인 1명, 홍콩인 2명, 말레이시아인 2명, 싱가포르인 1명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위구르족 소행 가능성 급부상=태국 경찰이 방콕 도심 테러의 용의자로 중동 출신을 지목함으로써 이 테러가 위구르족의 보복 차원에서 자행됐을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반군부 세력인 이른바 '레드셔츠', 남부 이슬람 분리주의자, 국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 관련 테러분자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테러 현장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용의자가 중동 출신 인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구르족의 소행 가능성에 적지 않은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태국 방콕 폭탄테러 현장인 에라완사원 근처에서 18일(현지시간) 밤 한 태국인이 촛불을 켜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18일 짜오프라야강 인근서 소규모 폭발...사상자는 없어

### 위구르족 중국 강제 송환 보복 추정...경찰, 용의자 추적

### 각국 태국 여행 자제 권고...관광산업 치명타 '경제 휘청'

태국은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자국에 불법 입국한 위구르족 109명을 지난날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이 당초 목적으로 원했던 터키에서 터키인들과 위구르인들이 주이스탄불 태국영사관에 난입하는 등 태국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태국에 아직 남아있는 위구르족들을 더이상 중국에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구르족 강제 송환 후 주태국 중국대사관은 이와 관련된 테러를 우려해 태국 당국에 경비강화를 요청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테러가 가해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에라완 사원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이며, 이번 테러에서도 중국과 홍콩 관광객 5명이 숨지는 등 중국인 피해가 컸다.

◇각국, 태국 여행 자제 권고=태국 수도 방콕 도심 한 가운데의 유명 관광지에서의 대규모 테러 사건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은 태국의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각국의 여행 자제 권고도 잇따르고 있다. 자국민 희생자를 낸 홍콩 정

부는 방콕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인 '홍색' 경보를, 그 외 지역에 1단계인 '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태국 주재 미 대사관도 자국민에게 사원 인근을 방문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태국 관광산업 큰 타격 예상=지난 2012년 6.5%의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했던 태국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2013년 2.9%로 뚝 떨어지고 나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난해는 0.7%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면했다.

이런 가운데 관광 산업 위축이 불가피한 방콕 도심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태국 경제의 시름이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관광 국가로 관광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약 10%를 차지한다.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나 주요 산업 중 관광 부문이 거의 유일하게 활황세를 보여 왔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인 출해 2900만~300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1조6000억~1조8000억 바트(약 53조4000억~6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매일 평균 50만여 명에 이르는 중



태국 경찰이 공개한 17일(현지시간) 방콕 에라완 사원 폭발 용의자 사진. /연합뉴스

국 관광객들은 연말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는 10월 7일 동안 계속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에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 폭탄 테러로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당국은 이번엔 사고를 당한 외국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서둘러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거듭 다짐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 中헛진 폭발사고 독가스 검출 '긴장'

## 비 내려 시안화나트륨 기화...500m 지점서 측정

최근 천문학적인 피해를 낸 중국 텐진(天津) 폭발사고 현장에서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 가스가 검출됐다고 중국 언론이 전문가들을 인용, 19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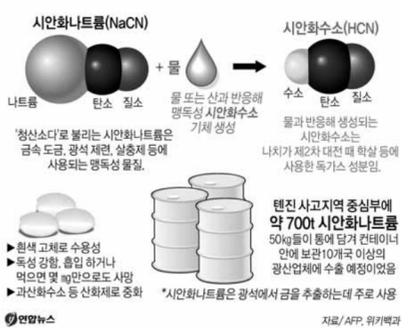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베이징소방총대는 텐진항 폭발사고 닷새째인 지난 16일 현장 조사에서 측정가능한 최고치 수준의 유독성 기체가 검출됐다고 공개했다. 측정지점은 사고현장에서 500m 지점이다.

특히 차량 접근이 어려워 산소공급기 등 장비를 갖추고 도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측정기에서 계속 경고음이 나왔다고 베이징 소방총대 관계자는 전했다.

텐진에 18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의 기화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안화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독가스 성분인 시안화수소가 생성된다.

베이징화공대학 만바오(門寶) 박사는 "시안화나트륨의 독성이 강해 피부 접촉만으로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흡입하거나 잘못 먹게되면 몇 mg만으로도 죽을

### 시안화나트륨 어떤 물질인가



텐진 사고지역 중심부에 약 700t 시안화나트륨 50kg들이 봉투에 담겨 텐진이나 인근 보란10개교 이상의 광산업체에 수출 예정이었음. /연합뉴스

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먼 박사는 또 폭발지점 반경 100m이 내의 지역에서 이뤄진 공기 측정에서 시안화나트륨 외에 신경성 독가스도 검출됐다면서 다양한 위험 화학품이 폭발과 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독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리는 특히 시안화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해 7방울만으로 70kg의 사람을 죽음을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작은 공기방울 상태로도 바람을 타고 공기중에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시안화나트륨이 하류에서는 5km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중국 전승절 신무기 공개 여부 이목 집중

## 박근혜 대통령·김정은 조우 가능성 주목

### 오늘 두번째 기자회견

중국이 내달 3일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과 관련한 두 번째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개최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9일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열병식 영도소조 관공실 부주임인 인민해방군 참모모부 작전부 최후이(曲叢) 부부장, 열병식 연합지휘부 관공실 상무 부주임인 왕순(王舜) 베이징군구 부참모장이 참석해 열병식 준비상황을 공개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열병식 동원병력 규모나 선보일 무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군은 지난 6월23일 열린 첫 열병식 기자회견에서 7대 군구(육군, 해군, 공군, 제2포병, 무장경찰(준군사조직),

인민해방군 4대 총부 직속단위 등에서 차출된 대원과 군장비(신무기 포함)들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병식 규모나 공개될 무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중국의 일부 언론들은 올해 열병식에는 1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외국정상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될지도 관심이다. 김정은 북한 당국에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 국방위원장 제1위원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과 몽골 정상들이 참석을 확정 지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경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범,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신제품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대산프리모가발